

괴물의 탄생*

- 신자유주의, 유연성 그리고 ‘지존파(至尊派)’

정명중** | 전남대

< 목 차 >

1. 들어가며
2. 전위된 공격성
3. 내부의 악령들
4. 영혼과 육체의 분리
5. 메리토크라시의 역설
6. 사디즘적 충동
7. 나오며

국문초록

우리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모든 전체주의들 중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로, 또는 일상적인 욕망에서부터 생활세계의 미시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총력전(total war)’의 기제를 이식해 놓은 무시무시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주최 제7회 감성연구국제학술대회(2016. 6. 17.)에서 발표한 『괴물의 탄생』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

체제로 봐도 무방하다.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 총력전이라는 명칭은 ‘무한경쟁’이라는 완곡한, 또는 덜 무시무시해 보이는 용어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개미지옥과 흡사한 전 방위적 경쟁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신체나 감정, 심지어 마음까지 자신의 모든 요소를 총동원해서 ‘완금성’을 지닌 것으로 끊임없이 탈바꿈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의 규칙은 매번 바뀐다. 이전 규칙에 적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신체와 마음을 지속적인 유동성의 압력에도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 변형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도태된다.

적자생존과 우승열패의 법칙이 자리한다. 또 다른 형태의 사회진화론으로 귀결돼버린 광범위한 경쟁 시스템 안에 올바른 의미의 ‘사회’가 들어설 지반은 없다. 단적으로 말해 신자유주의 체제는 사회를 증발시켜버렸고, 개인을 자기상실자 무리 또는 초조한 외톨이와 같은 찰나적이고 파괴적인 실존으로 지속적으로 몰아가는 구조이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내몰린 자들을 잔혹한 ‘괴물’과 같은 인격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일이 오늘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산(産) 괴물’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 1994년 당시 한국 사회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 ‘지존파(至尊派)’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범죄사의 임계점(critical point)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 대한 증오와 원한의 감정이 ‘자기파괴’에서 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와 공격으로 진이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곧 자신들의 절망을 무력한 약자들에게 쏟아 붓는 무력함의 전형인 ‘전위된 공격성’이 바야흐로 전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출현과 지존파 사건의 발생이 때를 같이 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32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명목상 ‘문민정부(文民政府)’가 탄생한 시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김영삼 정권이 국제화 또는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반(反)노동 기초의 경제 개혁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한국 경제를 무리하게 글로벌 시장경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사실상 신자유주의 체제가 자리 잡은 시점이기도 하다. 결국 지존파를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예외적’인 범죄의 무리로 보는 대신, 향후 한국 사회의 음지 곳곳에서 창궐하게 될 온갖 신자유주의 산 괴물들의 원형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 아래, 지존파 사건을 징후적으로 독해함으로써 신자유주의와 감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해보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근원적으로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강력한 신화 곧 ‘유연성’에의 추구라는 신화(=가상)를 주로 문제 삼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부추기는 유연성의 신화에서 배제되고 탈락된 자들이 괴물과 같은 실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동시에 유연성의 신화가 직조해낸 한국 사회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들의 흐름을 기술하고, 덧붙여 거칠게나마 그 극복 방안까지 검토해볼 것이다.

■ 주제어: 신자유주의, 유연성, 감성, 지존파(至尊派)

1. 들어가며

후지타 쇼조(藤田省三)는 정상적인 의미의 사회가 붕괴돼버린 무사회(無社會)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적 결합 없는 대중’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동원당해 완전히 소모되어버린 결과, 종래의 직장은 없어지고(실업) 이웃 및 친구들과의 관계도 산산조각이 나며(사교의 소멸) 격심한 인플레이션은 물건과의 관계에서 적도나 기준을 잃게 하여 몇 시간 뒤의 사태를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 이렇게 생활사회를 잃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건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며 관계를 잇는 이유

새로부터 이탈된 무사회적인 고립자인 것이다. (...) 즉 ‘몸도 마음도 자아를 상실한 자’의 무리만이 그 상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덕(德)으로서의 몰아’와는 정반대인 자기상실자의 무리(群), 냉정하게 심사숙고하는 고독한 자(solitude)와는 정반대인 초조에 내몰린 외톨이들(lonely crowd), 부정적 정서에 가득찬 자들이 이 상황의 지배적 주역이었다. 그들은 (...)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지도자’나 ‘조직체’에 ‘몸도 마음도’ 내 맡기려고 기다리고 있다.(...)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존재는 이제 없어지고 그 대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며 더 나아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실존(충동으로서의 자기 파괴적이기조차 한 실존)이 다른 존재 양식을 일소하고 마침내 존재자의 주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눈곱만큼의 상대적·일시적 안정성이나 지속성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발전’성과 ‘운동’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들 실존의 집합에 의해 초래된 상황은 이미 ‘사회’가 아니며,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결단’되고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지령을 받는 극도로 유동적인 무(無)사회 상황이다.¹⁾

쇼조에 따르면 20세기의 전체주의는 우선 ‘전쟁형태의 전체주의’로 출발해서, ‘정치지배의 전체주의’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이때 전쟁형태의 전체주의란 일상적인 사회적 요소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소모하고 게다가 하늘이나 바다 속과 같은 생활환경까지도 가능한 한 모조리 이용하려드는 무제한적이고 가공할만한 전쟁행위²⁾를 뜻한다.

한데 쇼조는 이러한 전체주의가, 특히 소모전에서 패배한 나라에서 ‘사회적 결합 없는 대중’의 양산을 부추겼다고 진단한다. 요컨대 그들은 생활사회를 상실해버린 무사회적 고립자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존재와는 관련 없이 찰나적이고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실존의 무리들이다. 이어 쇼조는 그러한 “무사회 상황에 편재하는 불안과 공포와 원한, 즉 불안정성을 그대로 제도화한 것”³⁾이 바로 정치지배의 전체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필자의 관심은 전쟁형태의 전체주의가 어떻게 정치지배의 전체주의로 귀결되었는가, 또는 그 논리적 프로세스가 정합한가, 하는 것을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다만 쇼조가 20세기적 현상으로 명명한 ‘무사회

1) 藤田省三, 이순애 역음/이홍락 옮김,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창작과비평사, 1999, 56~58쪽.

2) 같은 책, 55쪽.

3) 같은 책, 58쪽.

(無社會) 상태 그리고 '사회적 결합 없는 대중'이라는 술어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이데올로기가 전면적으로 식민화해버린 오늘날의 생활세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용해 보인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 싶다.

'예측 불가능', '불안정', '이음새로부터 이탈', '자기상실', '초조', '파괴적인 실존', '유동성', '공포', '불안', '원한'. 이것들은 쇼조가 사회적 결합 없는 대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어휘 목록들을 대략 나열해 본 것이다. 그런데 쇼조 논의의 실제적 맥락을 괄호치고, 위의 인용문만을 따로 떼어내어 읽는다면 어떨까. 오늘날의 비참한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건대, 그의 진단은 지금의 시점에서 적실한 바가 없지 않다.⁴⁾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모든 전체주의(totalitarianism)들 중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로, 또는 일상적인 욕망에서부터 생활세계의 미시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총력전(總力戰, total war)의 기제를 이식해 놓은 무시무시한 체제로 봐도 무방하다.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총력전이라는 명칭은 완곡한 용어로 대체된다. 무한경쟁이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개미지옥에 흡사한 전 방위적 경쟁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체나 감정, 심지어 마음까지 자신의 모든 요소를 총동원해서 환금성(換金性, liquidity)을 지닌 그 무엇으로 끊임없이 탈바꿈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경쟁의 규칙은 매번 바뀐다. 이전 규칙에 적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신체와 마음을 지속적인 유동성(流動性, liquidity)의 압력에도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 변형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도태된다.

적자생존과 우승열패의 법칙이 자리한다. 또 다른 형태의 사회진화론으로 귀결돼버린 광범위한 경쟁 시스템 안에 올바른 의미의 '사회(社會)'가 들어설 기반은 없다고 해도 좋다. 만성적인 피로와 신경증 상태로 내몰린 인

4) 앞서 본문에서 인용한 쇼조의 언급은 원래 1986년 2월 잡지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學)』에 실린 「전체주의의 시대경험」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이 실린 시점이 1986년인 점을 고려할 때, 즉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가 바야흐로 가공할 위세를 펼쳐 나아갈 무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전혀 엉뚱한 것을 필자가 이 글에서 아전인수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 듯하다. 물론 그의 진술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선취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리 없다고 생각한다.

간에게 이 세계는 서바이벌 게임의 각축장일 뿐이다. 자기 이외의 타자는 잠재적인 적에 불과하다. 한 사회를 유지하는 감정적 유대라거나 신의(信義)와 같은 덕목을 생각할 여지는 아주 희박하다.

신외와 더불어서 개인적이고 유동적인 내면적 삶은 실제로 고정되고 안정적인 관계 형식의 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또는 그 반대로 직접적인 삶이나 삶의 주관적인 리듬으로부터 독립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학적 사실은 신의를 통해서 비로소 주관적이며 정서적 색채를 띤 실제적 삶의 내용이 된다. (...) 신의란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인간 영혼의 상태이다. 하지만 신의는 동시에 이 영혼의 상태에 힘입어서 초개인적인 사회적 관계 형식이 지니는 안정성을 획득하며, 또 삶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로서 내용을 부여해준다.”⁵⁾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은 ‘신의’라 부르는 현상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사회가 제대로 존속할 수 없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신의는 모든 사회화의 근본적 형식이자, 내면적 삶의 유동성에 사회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심리학적 저수조(일종의 평형추)와 같은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러한 심리학적 저수조 혹은 평형추를 망가트리고, 사회를 증발시켜버렸다. 때문에 개인을 자기상실자 무리 또는 초조한 외톨이와 같은 찰나적이고 파괴적인 실존으로 지속적으로 몰아간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내몰린 자들을 잔혹한 ‘괴물(怪物)’과 같은 인격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일이 오늘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후 이 글에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산(産)’ 괴물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 1994년 당시 한국 사회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한 업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 사건을 징후적(symptomatic)으로 독해함으로써 신자유주의와 감성(感性)의 문제를 사유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근원적으로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되는 신화(=가상) 곧 ‘유연성(柔軟性)’에의 추구라는 신화를 주로 비판하고, 그러한 신화에서 배제되고 탈락된 자들이 괴물과 같은 실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연성의 신화가 직조해낸 한국 사회의 부정

5) Georg Simmel, 김덕영 · 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194쪽.

적이고 파괴적인 감정들의 흐름이 기술될 것이며, 거칠게나마 그 극복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전위된 공격성

부자들에 대한 증오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강령을 중심으로 6명의 청년이 범죄단체를 만들고, 이어 대단히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회대의 살인극을 자행한다. 1994년의 이른바 ‘지존파(至尊派)’ 연쇄살인 사건이다. 우선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1988년 세간을 뒤집어 놓았던 죄수들의 탈주·인질극 사건, 일명 ‘지강현’ 사건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이 사건과의 대비 속에서 지존파 범죄의 특이성(singularity)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상당한 사회적 공감을 낳았고 지금도 심심찮게 회자되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流罪)”라는 꽤 유명한 말이 있다. 굳이 풀이하면 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란 뜻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말은 탈주범 지강현이 1988년 10월 16일 서울 한 가정집의 가족들을 인질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살시도 끝에 사살되기 직전, 마스크를 향해 쏟아냈던 최후 항변의 일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서울 교도소에서 대전과 공주 교도소로 이송 중이던 미결수 12명이 집단으로 탈주하는 일이 발생한다. 대부분 징역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들이다. 이들 중 지강현을 포함한 5명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인질극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자신들의 억울함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방송 생중계를 요구한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려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그때 지강현이 방송에 대고 한 말들이다.

지강현 일당이 탈주를 결심한 이유는 불평등한 형량 탓이다. 당시 최고 권력자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약 70억 원을 횡령한 전경환 보다 500만원을 훔친 자신의 형기가 더 길었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두

환 정권이 만들어 놓은 보호감호제 탓에 지강헌은 징역 7년 이외에도 보호 감호처분 10년을 더 받아야 했으므로, 실제 형량은 총 17년인 셈이다.

한편 지강헌은 경찰에게 영국출신 록밴드 비지스(The Bee Gees)의 노래 <홀리데이(Holiday)>가 담긴 테이프를 요구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는 카메라를 향해 또 이렇게 외친다.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다.” 물론 범죄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조한다거나 공감한다는 게 어딘지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부를 찌르는 절규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한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미안하다 정말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할 테니 조금만 참아라.”는 식으로 수차례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도 인질 6명 중 사망자나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동정의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 참고로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 반향도 만만치 않았거니와, 독특한 일화들 덕분에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홀리데이>(양윤호 감독, 2005)까지 제작됐다. 물론 흥행하지 못했고, 평단의 평도 인색했다.

루시앙 골드만(Lucien Goldman)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설이란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다⁶⁾라는 식으로 정의한 바 있다. 물론 지강헌의 이야기는 소설도 아니고, 그를 영웅적인 주인공으로 추켜세울 이유도 없다. 다만 그의 행동에 담긴 메시지가 그러한 정의(定義)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다소나마 선의로 해석해 볼 여지는 없는 것일까.

하여간 그가 범법자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그나마 ‘상식(common sense)’의 언저리를, 위태롭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었다. 반면 지존파 사건은 그러한 상식을 근원적으로 무너뜨리거나, 그것을 초과해버린 미증유의 공포와 전율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당시 언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접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악마를 보았다!”며 경악했다.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기환은 1993년 당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학입시 부정 사건이 터지자, 부유층만을 골라 살해한다는 목적으로

6) Lucien Goldman, 조경숙 옮김,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92, 20쪽.

조직 결성을 모의한다. 이후 그를 포함한 6명이 조직에 가담하면서 지존과 가 만들어진다. 그들은 시골의 아지트 지하에 감금시설과 시체 은닉을 위한 소각시설까지 설치함으로써 치밀성과 대담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결국 그들은 1993년 7월 한 여성을 성폭행 한 후에 그 시신을 암매장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94년 9월까지 전국을 떠돌며 총 4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납치·살해하고 토막 내어 소각해버리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다. 심지어 그들은 담력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인육까지 먹는,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행위조차 스스로없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연실색할 일은 그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이 증오해마지 않았던 부유층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이다. 범죄 목적의 선명성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치밀성과 대담성에 비취볼 때, 그 피해자들은 실로 애꿎은 사람들이었기에 처참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 곧 증오범죄와 오히려 흡사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증오범죄의 특성은 범행 동기와 피해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거나, 너무 멀어서 그 식별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난한 시골 청년들에 불과했을 그들 앞에 범행 대상으로 삼은 부유층이 무턱대고 모습을 드러냈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그들은 부유층이 밀집해 있는 구역이나 그런 부류가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 어이없게도 그들이 부유층의 표식으로 삼은 유일한 지표란 바로 고급승용차를 모는 자였다. 여기서 범행 모의의 치밀성과는 상관없이 이들 집단의 어리석음이랄까 순진성이 드러나고 만다.⁷⁾ 범행 대상에 걸려 든 피해자들은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게 수월한 약자였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실제 피해자들도 그랬다. 여기에 이 허망하고 참담한 사건의 심각성과 비극성이 자리하고 있다.

88년 지강헌 사건과 94년 지존과 사건은 범행의 동기가 사회 부조리와 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었던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7) 이는 증오범죄의 특징 중 하나인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증오범죄의 특징은 비합리성 외에도 잔인성, 대량성, 무차별성, 지속성, 모방성 등이 있다고 한다.(김진현,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6권 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35~37쪽. 참조)

그러나 그 피해 양상이나 잔인성을 놓고 따졌을 때는 비교 자체가 난센스다. 한테 의미심장하게도 지존파 사건 이후, ‘온보현(溫保鉉)’ 살인택시 사건(1994년)이나 지존파를 모방한 일명 ‘막가과’ 연쇄 살인 사건(1996년) 등과 같은 끔직한 연쇄살인 범죄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사회 지도층이나 여론 주도층은 예의 인륜도덕의 추락을 탄식했다. 아울러 국가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질서가 필요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물론 사회적 공신력을 잃은 부유층들의 각성과 신뢰 회복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지존파 사건은 한국 범죄사의 임계점(critical point)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증오와 원한의 감정이, 곧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자기(自己)’에서 ‘타자(他者)’로, 그것도 불특정 다수의 타자들로 향해버렸기 때문이다. 곧 지존파 사건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자기파괴’에서 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와 공격으로 전이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건이다. 결국 94년 이후 한국사회는 “자신의 절망을 약자에게 쏟아 붓는 무력함의 전형적 증상”으로서 “전위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⁸⁾이 일상화되는 그런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3. 내부의 악령들

과연 그렇다면 88년과 94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는 도대체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일까. 공교롭게도 94년 무렵은 바야흐로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문지방을 넘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시점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때는 1961년 박정희(朴正熙)를 시작으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김영삼(金永三)이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명목상 ‘문민정부(文民政府)’를 출범시킨 시점이기도 하다.

8) Paul Verhaeghe, 장혜경 옮김,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 신자유주의적 인격의 탄생』, 반비, 2016, 190쪽.

김영삼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개혁의 기치를 소리 높여 주창하였지만, 사실상 김영삼 정권기의 경제개혁은 87년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근로자층의 분배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한국 경제의 ‘선진화’,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당시의 표어에서 볼 수 있듯, 개방 및 통합되어가는 세계시장에의 적극적인 편입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의 생존을 강조하는 정치·경제적 맥락,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조류에 가까운 것이었다.⁹⁾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 정부는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된다. 이 외환위기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체제로 편입된 것으로 여기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국제화 혹은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김영삼 정권은 ‘문민’의 이름으로 1987년 이후 증폭된 민주화의 열망에 췌기를 막는 대신, 반(反)노동기조의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사실상 이때부터 신자유주의 체제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고 보아야 옳다. 결국 김영삼 정권이 산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없이 무턱대고 무리하게 세계시장에 대한 편입을 강제함으로써 결국 IMF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출현하기 시작한 시점과 지존과 사건의 발생이 때를 같이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지존과를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예외적’인 범죄의 무리로 보는 대신, 향후 한국 사회의 음지(陰地) 곳곳에서 창궐하게 될 온갖 신자유주의 ‘산(産)’ 괴물(monster)들의 원형(prototype)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의 범주로서 한국 범죄사라는 격자가 아니라, 다른 격자가 필요하다. 그러한 ‘괴물=악(惡)’의 대척점에 위치시킬 수 있는 ‘선(善)’한 존재와 같은 것을 떠올려 보는 게 어떨까. 예컨대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추앙받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을 지존과

9) 김성수·유신희,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기술관료(Technocrat)와 정당엘리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132쪽.

와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다보스맨(Davos Man)’과 지존과를 말이다.

주지하듯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는 해마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이 열린다. 그 덕에 다보스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도사들의 전당으로 불리는 곳이 됐다. 따라서 다보스맨이란 신자유주의 이념에 딱 들어맞는 인간형을 가리킨다. 한데 흥미롭게도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다보스맨의 전형으로 마이크로 소프트(MS)사의 빌 게이츠(Bill Gates)를 들고 있다.

세넷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언제나 장기적인 정착을 거부하고 순간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면서 기존에 만들어낸 것을 제거해버리는 탁월한 유연성(柔軟性, flexibility)의 소유자이다. 물론 그와 같은 유연성은 자기분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질서 속에서도 견재할 수 있는 자신감”과 “방향 상실 속에서도 변창할 수 있는 강인한 기질”¹⁰⁾이 뒷받침 돼야 한다. 다보스맨 빌 게이츠의 미덕인 유연성과 강인함은 언뜻 인간의 자발성을 고무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미덕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훌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세넷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는 능력과 분열을 받아들이는 자신감, 이것이 다보스의 신자유주의에 진짜 정통한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인간성의 특징이다. 물론 그것은 자발성을 고무시키는 특징이긴 하지만, 그러한 자발성이 윤리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발성을 고무시키는 그러한 인간성은 유연한 체제 내의 하위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 근로자들이 유연한 힘을 구성하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다보스에 모인 사람들이 활용하는 규칙으로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역효과만 낼 것이다.¹¹⁾

요컨대 다보스맨의 ‘힘(power)’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과거와 단절하는 능력, 자기분열을 받아들이는 자신감 그리고 자발성이다. 그러나

10) Richard Sennett, 조용 옮김,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2, 84~85쪽.

11) 같은 책, 85쪽.

이 힘은 아무나 소유하거나 구사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특히 유연한 체제 내의 하위계층들이 이 힘을 구사하려했다가는 자신들의 인간성 파괴라는 역효과로 귀결된다는 점을 세넷은 경고하고 있다.

그러한 힘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보스맨은 비유컨대 ‘슈퍼맨(superman)’이다. 늘 그래왔듯 우리는 슈퍼맨에 열광하고 그것이 되길 욕망하고 꿈꾼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욕망에 애초부터 배반당한, 이를테면 ‘서브맨(subman : 인간적 기능 발달이 매우 낮은 사람)’과 같은 존재이다. 아니면 미구에 그런 존재로 전락할 운명에 놓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거와 단절할 능력도 없고, 자기분열을 감당할만한 자신감은 물론 자존감도 결여되어 있으며, 심지어 자발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개체들, 곧 유연하지도 강인하지도 않은 이런 개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우선 그들은 불가산(不可算)의 ‘잉여(redundancy)’ 또는 ‘인간쓰레기(지그문트 바우만)’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 ‘뭉 없는 자’(자크 랑시에르)로서 침묵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삶을 저주한다면, 스스로 괴물이 됨으로써 찰나의 파괴적인 충동에 온 몸을 내던지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내부의 악령 노릇을 떠맡는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오늘날 모든 유형의 사회 질서는 그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협들로서 ‘내부의 악령들’을 가시화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위협은 한 사회가 살아가고 존속해가는 방식과 수단, 그리고 양식에 의해서 지니는 내적 양면성의 표출이다. 그 존재 자체의 지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회는 포위 공격을 당하는 요새 같은 심리를 드러낸다. 사망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은 바로 그 사회 ‘내부의 악령들’이다. 그 악령들은 억눌려 있지만 상존하는 두려움이다. 그것은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그 ‘정상성’에 침투해 있지만, 일상의 현실이 견딜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압착, 추출된 외계 생명체로 빚어져야 한다.¹²⁾

지존파는 사회의 ‘정상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인들로서 가시화된 무리이다. 곧 정상성의 범주로부터 압착·추출된 외계 생명체의 이미지로서, 사회를

12) Zygmunt Bauman, 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 천지인, 2010, 145쪽.

안으로부터 공격하는 ‘내부의 악령들’로 초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희대의 살인집단 지존파와 세계적인 명성을 구가하는 다보스맨 빌 게이츠를 대비하는 것은 적잖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건대, 지존파와 다보스맨은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각각 대칭의 극점을 점령하고 있는 상징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보스맨의 음화(陰畫, negative image)가 실은 지존파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비유컨대, 신자유주의란 다보스맨과 지존파라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쌍두사(雙頭蛇)이다.

4. 영혼과 육체의 분리

신자유주의는 유연한 자본주의(flexible capitalism)를 지향한다. 그래서 때로는 “경직된 관료주의 체제를 공격하고 모험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그 덕분에 우리들에게 신자유주의 체제가 “인생의 자유도 보다 많이 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연성은 자본주의에서 “억압의 냄새를 없애는 다른 방법”¹³⁾일 뿐이다. 대신 세넷은 신자유주의적 유연성이 인간성에 미치는 가장 해로운 영향으로 ‘지속 가능한 자아(sustainable self)’의 상실을 꼽고 있다.

사람의 감정적 경험에서 주로 “장기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인간성(character)이다. 인간성은 특히 타인을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대하고,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며, 장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만족을 포기하는 것”에 의해 표현되곤 한다. 또한 사람은 특정한 순간의 혼란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인간성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감정”이다. 그러나 “온통 즉각적인 이해관계에만 혈안”이 된 “조급증 사회”¹⁴⁾에서 그러한 감정은 말 그대로 지속 불가능하다.

특히 오늘날 “불안정과 불확실성이라는 망령이 모든 유형의 일자리에 들

13) Richard Sennet, 앞의 책, 9쪽.

14) 같은 책, 10쪽.

러”¹⁵⁾ 붙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카멜레온 같고 변동이 심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며 불규칙하고 때로는 하루살이 같은 본성”¹⁶⁾이 지속 가능한 자아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른바 단순 노동자(routine labourer)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고, 그들의 삶과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하루살이 같은 본성이다.

고용된 상태에서, 언제든 교체될 수 있고 버려질 수 있는 임시 ‘단순노동자들’의 몸뚱이는 일터에 있지만, 그 영혼은 몸뚱이 안에 없다. 일터는 여전히 생계의 원천이지만 삶의 의미는 아니다. 또한 윤리적 믿음과 도덕적 실천 기준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믿을만한 인간적 유대의 온실도 아니다.¹⁷⁾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직종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아 옮겨 다닌다. 그렇지만 동일한 이유로 언제든 용이하게 해고되거나 폐기처분 될 수 있다. 그들의 삶은 늘 불안하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생계의 원천인 일터에서 삶의 의미는 실종된다. 그 결과 몸은 일터에 있지만 영혼은 그 안에 없다. 곧 영혼과 육체가 따로 노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유대의 지반도 부실하다. 그들은 모래알과 같은 무력한 주체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방해 능력’도, 협상 능력도 없으며, 설사 그들이 더 나은 고용 조건과 환경을 얻어내기 위해 싸울 수 있고 싸울 의지가 있다 하여도, 그 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¹⁸⁾도 희박하다.

지속 가능한 것은 더 이상 없다. 다만 유일하게 지속적인, 유동성의 파도에 몸을 내맡긴 채 개체들은 철저한 단자(單子) 수준으로 고립된다. 이 단자들의 안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줄 토대가 없다. 사회적 관계망이 와해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다.

15) Zygmunt Bauman, 앞의 책, 125쪽.

16) 같은 책, 119쪽.

17) 같은 책, 121쪽.

18) 같은 책, 118쪽.

따라서 이들이 순간순간의 혼란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찰나의 충동에 이끌리고, 무턱대고 결단하고 무모하게 행동해버리는 일이 잦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연성과 끊임없는 변화를 향한 전 사회적 강박의 결과이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귀결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일찌감치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는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처럼 예견한 바 있다.

(...) 끊임없는 생산변혁, 모든 사회적 상태의 부단한 동요, 영구적인 불안정과 운동이 부르주아 시대를 과거의 모든 시대와 구분 짓는 특징들이다. 굳고 녹슨 모든 관계 그리고 그 산물인 오래되고 신성한 관념들과 견해들은 해체되었고 새롭게 형성된 것은 굳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¹⁹⁾

매우 유명한 구절이다. 부단한 동요와 영구적인 불안정, 이것이 과거 모든 시대와 부르주아 시대를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변별점이다. 부르주아 시대에는 모든 것이 형성되어 그것이 채 굳기도 전에 이미 해체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 한편 마셜 버만(Marshall Berman)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포착한 부르주아 사회의 그와 같은 니힐리즘(nihilism)적 동학(dynamics)을 ‘용해적 비전(melting vision)’²⁰⁾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한 바 있다. 어느 면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러한 용해적 비전을 그 극단까지 밀고 나아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 체제는 고도로 정적(靜的, static)인 사회를 창출해 놓았기 때문이다.

19) Karl Marx · Friedrich Engels, 이진우 옮김, 『공산당 선언』, 책세상, 2004, 19~20쪽.

20) Marshal Berman, 윤호병 · 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2004, 139~160쪽, 참조.

5. 메리토크라시의 역설

한편 신자유주의형 사고의 베이스는 항상 ‘개인(individual)’이다. 주지하듯 신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이 가진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이는 시장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사회적 성공이나 실패는 “체제 양식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기업가적 덕목 혹은 실패로”²¹⁾ 이해된다. 따라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자신의 노력 여부에 달렸고, 그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책임과 행동의 주체로서 늘 ‘자기(自己, self)’가 부각(혹은 강요)된다. 자기 본위 사회라는 식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예컨대 ‘자기주도(自己主導)’, ‘자기계발(自己啓發)’, ‘자기경영(自己經營)’ 등의 말들을 익히 들어왔다. 그것들은 오늘날 유력한 프로파간다들이다. 거기에는 낙관주의와 이상주의, 게다가 초월주의까지 죄다 뭉뚱그려져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핵심에는 자기의 완성(完成) 또는 성장(成長)이라는 명제가 정언명령처럼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주도이건, 계발이나 경영이건 어떤 형태여도 상관없다. 도달하는 지점은 결국 동일하다. 자기란 중단 없는 노력을 통해 미구에 좀 더 완전한 것으로 진화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완전체(完全體)에 대한 가없는 열망이 오늘날 유통되는 모든 ‘자기’프로파간다의 백터이다.

그런데 온갖 낙관주의와 달콤한 이상주의로 누벼진 이 프로파간다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 즉 완전체의 이상에 도달하려면, 현재의 자기를 끊임 없이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드러내 놓고 말하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도래할 미래의 이상에 비춰보거니와, 현재의 자기는 늘 함량미달이다. 혹은 아직은 덜 진화된 탓에 결함을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기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수시로 부정되고 가차 없이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결국 이로부터 현재의 삶을 미래를 위해 저당 잡는다는 식의 금융적 이상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자기프로파간다는 낙관주의와 이상주의의 목소리로 삶을 증오하고 저주할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초월할 것

21) David Harvey, 임동근 외 옮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2010, 44쪽.

을 가르친다. 이점에서 우리는 슬픈 정념의 노예들이다. 그러나 이 프로파간다들은 그런 사실을 결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의 부단한 운동성(혹은 유동성)만을 권장하고 다그칠 뿐이다.

자기의 부단한 운동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고도의 유연한 체제가 정적인 사회를 창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역설(paradox)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파울 페르하헤허(Paul Verhaeghe)의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 능력주의) 비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메리트크라시란 원론적으로는 개인의 지위나 보수가 출신이나 가문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 및 실적, 곧 메리트(merit)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체제를 가리킨다. 결국 메리트크라시란 자기프로파간다의 사회적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무튼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 메리트크라시 이념은 비단 교육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포함해 사회의 전 부문으로 침투되고 확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메리트크라시가 원래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몰고 왔다는 점이다. 즉 “최단기간 안에 유동성은 마비”되고 대신 “빈부격차는 심해져”버린 것이다. 그 원인은 두 가지이다. 우선 “만인의 출발 기회가 동등하다는 가정”이 실은 “망상”이었다는 점이 이내 드러났다.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이 “자기 다음 차례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조심 문을 닫아버리는 새로운 엘리트를 고용”²²⁾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정상에 있는 집단이 자기 자리와 특권을 다지고, 아래에서 절대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는”²³⁾ 대단히 정적인 사회가 돼버렸다.

페르하헤허에 의하면 이러한 메리트크라시의 가장 사악하고 범죄적인 버전(version)이 바로 ‘엘론(Elon)모델’이다. 엘론사(社)는 2001년에 파산한, 한때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최고의 생산성을 올린 직원에게 보너스를 몰아주고 생산성이 제일 낮은 직원은 해고하는 전형적인 경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것이 엘론모델이다. 일명 ‘등수 매겨 내쫓기(Rank and Yank appraisal system)’라고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22) Paul Verhaeghe, 앞의 책, 133쪽.

23) 같은 책, 137쪽.

시스템의 결과는 회사의 파산이었다.

직원의 성과를 지속적인 경쟁의 잣대로 평가하여 연말에 하위 10%를 해고했다. 물론 해고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다. 이름, 사진,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기업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일단 기간 안에 거의 모든 직원이 수치를 조작했고 회사 전체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사기극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다.

이미 실패했고 범죄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론모델은 도처에서 이용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인적자원 경영자들은 무조건 20/70/10 규칙을 지켜야 한다. 100명의 직원 중 스무 명은 최고로, 일흔 명은 위태로운 대중으로 보아야 하며, 10%는 해마다 쫓아내야 한다. 그 10%가 수익 및 성장의 목표치를 달성했다 해도 마찬가지이다.²⁴⁾

이러한 엘론모델이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 우선 개인들은 “좌절감과 시기심” 또는 “공포와 망상증의 혼합”²⁵⁾에 만성적으로 괴롭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듯 “20/70/10”의 비율로 굳어진 사회적 관계의 정적인 성격은 실패자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속수무책의 느낌”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수무책의 느낌은 자폐증상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루저(loser)들의 내면에 무의미한 공격성이 팽배하고, 결국 그것이 “자해 행동”²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속수무책의 느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과 내면을 강하게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속수무책(束手無策)이란 사전적으로 “손을 묶인 듯이 어찌 할 방책(方策)이 없어 꼼짝 못하게 된다는”, 곧 “뻔히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꼼짝 못한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helplessness’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이러한 느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행동성이 안으로 말려들면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상태로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소의 과장을 섞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속수무책의 느낌에서,

24) 같은 책, 139쪽.

25) 같은 책, 144쪽.

26) 같은 책, 159쪽.

이른바 ‘근대(近代, Modern)’의 결정적인 과산을 목도해야 할지도 모른다. 원리상 또는 그 시원적 이념에 따르면 근대(혹은 근대의 ‘정신’)란 바로 다 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는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사(意思)를 지닌다는 상(像)을 제 것으로 삼고, ‘운명’이 아니라 ‘필연’으로, ‘자연’이 아니라 ‘인위’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낳았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인과관계를 특정하고, 이러한 인과를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환경에 작용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고로 향하게 됐다. 즉 이 세계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축’되어야 할 대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근대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됐다.²⁷⁾

요컨대 근대의 정신이란 ‘자연(=운명)’ 보다는 ‘인위(=필연)’를 우위에 둬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소여(所興)가 아니라 구축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태도이다.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사회와 제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응당 그래야 한다.

그러나 속수무책의 느낌에 지배받는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과 의사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곤란하다. 이 지점에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근대와 중세(혹은 전근대)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픽션(fiction)’의 가치와 효용을 믿는 정신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보도록 하자.

영어의 ‘fiction’은 원래 라틴어의 ‘fictio’에서 온 것이다. 이는 우선 ‘to fashion’(형태를 만들다), ‘to invent’(발명하다)를 의미했고, 후에 ‘to imagine’(상상하다)나 ‘to pretend’(겉을 꾸민다) 등의 뜻이 덧붙는다. 픽션이란 인간이 어떤 목적이나 아이디어에 따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픽션의 가치와 효용을 믿는 정신은 따라서 ‘질료(matter)’가 아니라 언젠가 ‘형상(form)’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적인 제작 활동”과 그 결과물로서 “제작물에 대해서 자연적 실재보다 높은 가치 평가를 해가는 태도”²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세는 다르다.

27) 吉田徹, 김상운 옮김, 『정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바다출판사, 2015, 36쪽.

28) 丸山眞男, 김석근 옮김,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435쪽.

(…) 중세처럼 인간이 출생이나 신분에 의해서 위계적으로 위치지어져서 사회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인간의 사회적 환경이 마치 산이나 해나 별이나 달과 같은 자연적 실제성을 띠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었지. 본래 일정한 목적을 가진 제도에서도, 그것이 환경 속에 가라앉게 될수록 주어진 것으로서, 즉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히 생겨난 것으로서밖에 인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목적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²⁹⁾

민약 위의 인용문의 첫 문장에서 “중세처럼”이란 말 대신 “오늘날처럼”으로 바꿔서 인용문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무척 애석한 일이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게 문제다. 더군다나 “신분제도는 사라졌으나 신분의식은 온존”하며 “기존의 지배질서가 무너졌지만, 귀족적 파벌의식은 오히려 보편화”³⁰⁾돼버린 이즈음의 한국사회를 반추해보더라도 더더욱 어색하지 않다.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나 환경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떻게든 바꿀 수도 없는 난공불락의 것으로 인식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흡사 새로운 중세를 살고 있다고 해도 좋다. 고정된(위계적인) 사회적 관계가 자연적인 실제성을 띠고 육박해오는 한, 인간의 정신에 픽션의 가치와 효용이라는 테제가 들어설 여지는 없다. 사회적 환경은 마치 제2의 ‘자연(自然)’과 같은 것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이 중세라면 그러한 자연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운명으로 여기지 않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나 환경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 요지부동의 것으로 인식돼 가고 있다는 점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속수무책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6. 사디즘적 충동

29) 같은 책, 436쪽.

30) 김찬호,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4, 125~126쪽.

어찌되었건 오늘날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다. 그런데다가 명목상 기회나 조건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든 민주적 가상이 보편화돼 있다.³¹⁾ 설사 고착화된 사회적 환경을 숙명 같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체념한다 해도, 속수무책이라는 느낌의 바로 아래 지층에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자, 또는 앞서 가는 자에 대한 선망³²⁾과 질투 그리고 원한(resentment)과 증오와 같은 감정이 스며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휘발성(揮發性)이 매우 강력한 부정적 감정들이 속수무책의 느낌 속에 아슬아슬하게 감싸여 있는 형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정적 감정이 일정한 계기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파괴적인 충동과 접촉되고, 이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한 무모한 공격적 행동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전 사회적인 유연성 강박증이 부추기는 속수무책의 느낌을 가장 사악하고 병리적인 방식으로 부인(否認, disavowal)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무리가 바로 지존파였다고 할 것이다. 두목을 포함하여 조직의 멤버들은 빈곤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게다가 특별한 기술도 없이 도시의 변두리에서 날뎠음판이로 생계를 연명해야 했다.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학력자본도 변변치 않았기에 애초부터 메리트크라시 체제로 편입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지강헌이 말했던 이른바 ‘낭만적인 바람막이’ 같은 게 있었을 리도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은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그들을 단단하게 움아매줄 유대의 끈 같은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31) 참고로 한국의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32) 필자는 오늘날 만연해 가고 있는 이 선망의 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선망의 감정이란 자신이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갈망이다. 이른바 박탈감이 선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 박탈감이 상대적이나 또는 절대적이나, 하는 문제는 중요치 않다. 선망하는 자의 내면에는 자신을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만드는 대상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감춘 경우가 흔하다. 우월한 자에 대한 선망은 그에 대한 증오의 감정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출고, 『길 없는 청춘들의 서사』, 『인간·환경·미래』 제8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2, 10~11쪽.)

그러한 끈을 그들이 ‘유사(類似) 가족주의(家族主義)’ 형태에서 찾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한국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감응은 각별하다. 이를테면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안식처로서 혹은 사망의 적들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 사수해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 가족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아무리 ‘가족주의’를 비판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오늘날 불안한 개인들이 최후의 보루로서 가족과 유사한 공간을 생존의 차원에서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확산하려는 노력과 집착은 어느 면에서 불가피해 보이 기초차 한다.

문제는 그러한 유사 가족주의 집단들이 부자(父子)관계의 변질된 모형들, 이를테면 ‘오야붕(親分)/꼬붕(子分)’ 또는 ‘주군(主君)/가신(家臣)’하는 식의 위계적 관계모형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러한 위계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자기유지의 원칙을 구성원 상호 간에 보증하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이다. 유사 가족주의의 극단의 형태를 보여주는 곳이 ‘조폭(조직폭력배)’의 세계이다.³³⁾

한편 19세기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기원한 범죄조직인 ‘마피아(Mafia)’가 아마도 유사 가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 아이콘이 아닐까 싶다. 그들이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보통 대부(代父, Godfather)라고 호칭한다는 점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한데 특기할만한 것은 마피아가 중세의 봉건 질서가 와해됐고, 중앙집권적인 근대 국가 체제가 아직 형성되지 직전의 틈새에서, 곧 사회적 안전망이 채 자리를 잡기 전의 과도기 상태에서 일종의 ‘자력구제체제(self-help system)’로서 등장했다는 점³⁴⁾일 것이다.

따라서 자력구제체제로서 마피아는 자신들의 유대와 결속을 가족적(혈연적) 수준과 흡사한 것으로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국가로 따지면 헌법 노릇을 하는 조직 강령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Omerta’(계율)이다. 그 계율은

33) 한국의 가족주의 풍토에 대한 언급은 좋고, 『인문과 치유, 그 접합을 위한 제언 : ‘사회’없는 사회에서 ‘사회’ 만들기』, 『인간연구』 제18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0, 125~126쪽의 내용을 갈무리한 것이다.

34) 김동욱, 『19세기 시칠리아 마피아 발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1쪽.

괴물의 탄생

통상적으로 침묵의 계율(조직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것), 신뢰의 계율(조직을 배신하지 않을 것), 피의 계율(조직을 배신한 자는 죽일 것)로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력한 외톨이(lonely crowd) 신세였던 지존과 멤버들 또한 속수무책(helplessness)의 느낌 속에서 그와 같은 자력구제 체제를 강렬하게 욕망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있다. 그들 역시 다음과 같이 적잖이 섬뜩한 강령을 내세웠던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 각자 10억씩 모을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 배신자는 죽인다.
-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이러한 강령을 바탕으로 그들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머리에 ‘지존(至尊)’이라 쓴 머리띠를 두르고 야산에서 생존을 위한 지옥훈련까지 했다고 한다.³⁵⁾ 그들이 실시했던 지옥훈련은 일종의 통과제의(通過祭儀)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일정한 ‘문턱[liminal zone]’을 넘음으로써, 곧 극한의 시련과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식의 가상을 충족시켜줄 법한 상징적인 의례의 절차가 그들에게 필요했을 게 틀림없다. 자기부정의 열망 또는 마조히즘적 열정(다른 말로 ‘금욕적 이상’)에 기반을 둔 허구적 ‘갱생(更生)의 신화’를 통해 그들은 결속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이들을 묶어주었던 요소가 ‘자기계발’ 이데올로기였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그들은 암흑가와 교도소를 무대로 벌여지는 살인, 폭력, 도박, 마약 등의 범죄 행위를 미화한 홍재규의 『야인(野人)』(전6권)이나 이진수의 『뽕키통』(전5권) 같은 소설을 탐독하면서 범죄의 수법을 모방하고자 했고, 또한 일본의 ‘야쿠자(やくざ) 소설’ 따위를 돌려 읽으면서 조직의 단합과 의리를 다졌다고 한다. 더군다나 두목 김기환은 조직을 결성하기 전에 리렌버그의 『대화술과 성공술』같은 전형적인 자기계발서를 뒤적거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 자기계발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범

35) 이 때문에 그들이 ‘지존파(至尊派)’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애초 그들의 조직 명칭은 ‘야망’을 뜻하는 희랍어 ‘Mascan’이었다고 한다. 그들을 검거했던 형사가 범죄조직 명칭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지존파로 명명한 것으로 돼 있다.

죄의 용도로도 소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적잖이 걸끄리울 수밖에 없다.

하연간 그들은 “쓸모없는 자신에 대한 강한 혐오”의 감정이 “결속력 높은 집단 속에서 자기를 잊고자 하는 의지”³⁶⁾로 귀결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대한 최초의 메커니즘을 실현한 것이다. 즉 “인간이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개인적 자아에 결여된 힘을 얻기 위해 자기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그 자신을 융합시켜 가고자 하는 성향”³⁷⁾을 통해 그들은 결속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불안한 실존에 안정감을 부여해줄 지속 가능한 자아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을 대신할, 곧 자신들의 약점을 카무플라주(camouflage)할 수 있는 무언가 강력하고 단단한 것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루살이 같은 본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물론 그 귀결은 지존파라는 범죄 결사체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조직은 지속 가능한 자아의 대리보충(supplement)인 셈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성을 지우고 집단으로 삼투해버림으로써 결핍된 힘에 대한 열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힘에 대한 그들의 병리적인 열망은 자신들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합리적인 의지로 분출되지 못한다. 차라리 모조리 파괴하고 말겠다는 공격적인 충동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결단하고, 무모하게 행동한다. 그 끝은 이미 보았듯 비참했다. 그 힘은 정작 증오의 표적이었던 부유층으로 향하지 못했고, 애꿎은 자들만 희생시켰다.

앞서 필자는 속수무책의 느낌에 지배받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행동성이 안으로 말려들면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러한 수동성과 수세적인 상태를, 다른 말로 열등함을 단숨에 뛰어넘고자 하는 초조합이 힘(폭력)의 실행과 효능에 대한 과도한 조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조바심이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고자하는” 간절한 욕망과 만난다. 지존파를 지배했던 것 역시 그와 같은 공격적인 사디즘의 충동이었다. 그러나 그들

36) Eric Hoffer, 이민아 옮김, 『맹신자들』, 궁리, 2012, 93쪽.

37) Erich Fromm, 원창화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2014, 121쪽.

은 그 충동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폭력을 거리낌 없이 합리화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입어왔다. 따라서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나의 소원은 단순히 내 아픔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³⁸⁾

7. 나오며

신자유주의 체제가 쉽 없이 강조하는 유연성은 개인들의 본성을 온통 휘저어 하루살이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어떻게 해도 꿈쩍이지 않을 것이라는 속수무책의 느낌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버리고 말았다. 유연성의 기만 혹은 역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유연한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하루살이와 같은 본성과 속수무책의 느낌을 일거에 부인해보려는 욕망을 ‘최초로’, 그것도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 표출했던 무리로 1994년의 연쇄살인집단 지존파를 지목했다. 그리고 그들을 반인륜적이고 예외적인 범죄의 무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유연성 체제가 심화되면 될수록 그러한 체제에 편승하지 못하거나 배제된 자들은 특정한 계기만 주어지면 그와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금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속수무책의 느낌 안에는 자기와 타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될 지도 모를 증오와 원한과 같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시한폭탄처럼 내재돼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도처에 잠재적인 괴물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자의건 혹은 타의건 언제이고 괴물로 현실화될 태세가 되어 있다. 우리가 유연성의 교의(dogma)에 매달리고, ‘누구나’ 노력만 하면 빌 게이츠와 같은 다보스맨이 되어 성공과 부를 거머쥌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 동안 말이다.

우리는 다보스맨이 되는 헛된 꿈을 꾸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 산 괴물이 되지 않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다보스맨은 신기루이지만,

38) 같은 책, 123쪽.

지존과 같은 괴물은 현실(Real)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길이 무엇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것이다. 즉 획일화되고 강요된 삶(the Life)이 아니라, 복수의 다층적인 ‘삶(a Life)’의 형태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적잖이 식상하고 싱거운 주장이라는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다.

아무튼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서들이 참 많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사회적 모순과 비참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돌리는 것은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비판하면서 대안 사회를 구상하는 다양한 실천적 논의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향가고 있다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도 종종 들려온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 사회의, 이를테면 집단적 ‘감정회로(感情回路)’에 남겨놓은 부정적인 문제들과 해악들은 단숨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인간의 감정이란 기본적으로 지속성의 구조를 갖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구조화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혹은 그것이 과생시켜놓은, 당분간(아니면 오래도록) 지속될 부조리와 모순들을 ‘감성(感性, emotion)’이라는 코드로 변환해서 훑아보는 일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 김동욱, 『19세기 시칠리아 마피아 발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성수 · 유신희,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 기술관료(Technocrat)와 정당엘리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 김진현,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6권 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 김찬호,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4.
- 정명중, 『길 없는 청춘들의 서사』, 『인간·환경·미래』 제8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2.
- 정명중, 『인문과 치유, 그 접합을 위한 제언 : ‘사회’없는 사회에서 ‘사회’만 들기』, 『인간연구』 제18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0.
- 吉田徹, 김상운 옮김, 『정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바다출판사, 2015.
- 藤田省三, 이순애 역음/이홍락 옮김,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창작과비평사, 1999.
- 丸山眞男, 김석근 옮김,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 David Harvey, 임동근 외 옮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2010
- Eric Hoffer, 이민아 옮김, 『맹신자들』, 궁리, 2012.
- Erich Fromm, 원창화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2014.
- Georg Simmel, 김덕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 Karl Marx · Friedrich Engels, 이진우 옮김, 『공산당 선언』, 책세상, 2004.
- Lucien Goldman, 조경숙 옮김,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92.
- Marshal Berman, 윤호병 · 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술사, 2004
- Paul Verhaeghe, 장혜경 옮김,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 신자유주의적 인격의 탄생』, 반비, 2016.
- Richard Sennett, 조용 옮김,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2.

Zygmunt Bauman, 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 천지인, 2010.

Abstract

The Birth of a Monster

Jeong, Myung-jung(Chonnam Univ.)

We can see Neo-liberalism as the head of totalitarianism or a horrible system which got implanted a mechanism of 'total war' from daily desire to microscopic level of life world. Of course, the horrible term of total war is replaced with an indirect and less horrible term of unlimited competition in neo-liberalism. In a total directional competitive system like an ant lion's pit, human beings should keep transforming oneself to be with liquidity by using all the elements from body and emotion to mind.

Unfortunately, the rule of competition changes every time. Even before adjusting to the existing rules, we should accept new ones again. Thus, what we need is just keep moving. We must transform our body and mind to stand the pressure of continuous liquidity, or fall behind.

It is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There is almost no base for proper 'society' in the extensive competition system resulting in another type of Social Darwinism. For the humans driven to chronic fatigue and neurosis, this world is an arena of survival game. The others except oneself are just a latent enemy. There is little room to think of emotional bond to keep a society and a virtue such as faith or loyalty.

Shortly speaking, neo-liberal system evaporated a society and keeps driving an individual to an instant and destructive existence like a self-loss or lonely crowd. Today it is often that those who are driven to the end are finally transformed to the personality of a cruel monster. It is what this study critically questions.

To explain the advent of such a monster, as a product of

neo-liberal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ghoulish serial murder case known as ‘Jijonpa’ murder in 1994 which shocked and scared the whole Korean society.

The case was a critical point of history of Korean crime. And that played a key momentum to transfer personal hatred and regret of the country or society from ‘self-destruction’ to unconditional terror and aggression to the others. It was a signal flare that ‘displaced aggression’ which is a model of impotence that pours one’s desperation onto the weak got spread into the whole society.

What we should consider more importantly is that the advent of neo-liberal system in Korea and Jijonpa case happened almost in the same period, It is not a simple coincidence. The crime happened when nominal ‘civilian government’ was born after termination of the military regime sustained for 32 years. And it was when neo-liberal system was actually established as the Kim Young-sam government forced economic reformation policy of anti-labor basis under the sloga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incorporated Korean economy by force (or blindly) into global market economy. Thus, it is necessary to see Jijonpa case as a prototype of the monster neo-liberalism produced to be rampant in every shady spot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rather than to see as an extreme anti-humanity and ‘exceptional criminal gang’.

With the view above mentioned, this study reads the Jijonpa crime as symptomatic in order to critically think of the matter of neo-liberalism and emotion. To do so, we focus on the powerful myth regarded to support neo-liberal system rootedly, that is the myth (=illusion) of pursuing ‘flexibility’. Ultimately, it is to prove that those who excluded and dropped out of flexibility encouraged to be an existence like a monster by the neo-liberal system. In addition, the study deals with the flow of negative and destructive emotion which the myth of flexibility produced in Korean society, and reviews the counter measure even if it

괴물의 탄생

is rough.

▣ Key Word: Neo-liberalism, flexibility, emotion, Jijonpa

접수일자: 2016. 7. 9 심사일자: 2016. 7. 20 게재결정: 2016. 8. 2